



공동체 소식



사순 제2주일

중요인 아버지 하느님, 저희 죄인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주셨으니,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을 따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정한조 /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 박상준 안젤로 / 김화년 요안나 가정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인 성 요셉을 공경하며,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희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3/6(금) 오전 10시
- 성모성심미사 : 3/7(토) 오전 10시

구역미사 및 판공

- 2/3구역 : 3/6(금) 오후 7시, 안병환 발렌티노 맥 2624 W. 145th St. Leawood
- 1구역 : 3/13(금) 오후 7시, 김태중 예레미아 맥 7729 Mohawk dr. Prairie Village

사순특강

- 일시 : 3/8(일) 중심미사
- 강사 : 샌루이스 성당 석근웅 요한 신부님(청주교구)

Unitas 청년 피정

- 일시 : 3/13일-15일(2박3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
- 문의 : 청년회장 선헌서 미카엘라 (573) 673-1429

기타

- 교육부 : 오늘 중/고등부 야외활동으로 스케이트장 갑니다.
- 전례부 : 지난 주일에 이어 '마니또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바구니에 넣고, 정성껏 한 장을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합니다.
- 평협 : 다음 주일 중심미사 후, 간단한 본당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 사순시기를 맞아, 캔사스대교구에서 Rice Bowl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순시기 동안 희생과 절제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19	511	180/166	11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문예나 요안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화년 요안나 신혜경 마리아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펠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돌, 박정자, 양정희, 한순례
차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22	87명	339불	1,070불
김대성, 김호원, 이계희, 이현주, 차호섭, 주영길, 현주용(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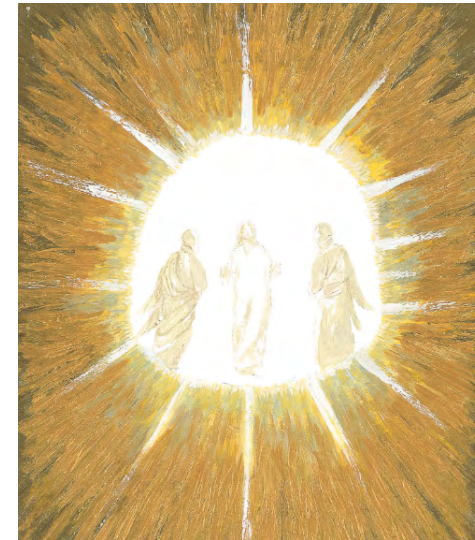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사순시기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잠시 눈을 들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분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림 묵상

거룩한 변모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에 앞서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는, 더욱 큰 영적 갈망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순 시기를 지내라는 초대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례

제 1 독서 : 창세기 22,1-2.9,10-13.15-18 <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화답송:

나 는 거 날 리 - 라 주 님 앞 에 서
 생 명 의 지 역 에 서 거 날 리 - 라

- 모진 고생을 뉘면서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가락할쏜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
-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제 사슬을 끊어 주셨나이다. ◎
- 주님 당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올리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저의 서원을 채워 드리이다. ◎
- 주님의 궁전 안뜰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 2 독서 : 로마서 8,31-34

<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코 9,2-10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

쉐 마

“사랑받는 아들”



갈릴래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곡창지대로 사용되는 이 평야의 끝자락에 타보르 산이 위치합니다. 이 산 위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도 드넓은 평야 지대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타보르 산은 전통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읽게 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엔 현재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기념하는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선 공통적으로 ‘높은 산’이라고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 높은 산이 어디인지 많은 논쟁 끝에 마태오와 루카에서 전하는 일주일 정도의 여정에 따라 타보르 산을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꼽히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함께 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대부분의 기적이나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럴듯이 거룩한 변모 역시 사건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반응을 더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에서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초막에서라도 함께 머물고 싶어 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서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땅에서의 반응 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반응 역시 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세례에서 역시 비슷한 하늘의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르 1,11). 공생활의 시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가는 막바지 여정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저 한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은 오늘 복음과 독서를 하나로 묶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

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이야기는 이미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느님 역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외아들이고, 그분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수난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인간의 손에, 하느님의 창조물 손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사순시기는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서 역설적으로 고통스런 수난과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순시기는 보속과 참회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카톨릭대학 어규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생인 성사와 기도



제11-1 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주석】

걱정하지 마라 :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신뢰의 표다. 시편 37,5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다른 민족 :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느냐 않느냐에 있다.

하느님의 나라 :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통치’를 뜻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뜻하기도 한다. 1코린 10,31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설명】

▶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고 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찾고 신뢰하는 것이다. 옛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다. 도깨비 방망이로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도깨비 방망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깨비 방망이가 만들어 낸 황금과 보석에만 정신을 팔더라는 예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도깨비 방망이겠는가? 아니면 그 방망이가 만들어낸 황금이겠는가? 황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때가 되면 없어지게 마련이다.

【교회의 가르침】

▶ 그리스도인의 청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가오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고 찾는 것에 집중된다. 청원에는 순서가 있다. 먼저 하느님 나라를 청하고,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의 도래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해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2 항).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전구는 아브라함 이래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 마음의 특징이다. 교회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전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인들의 통공을 표현하는 것이다. 전구에서, 기도하는 이는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며”(필리 2,4),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35항).

▶ ‘주님의 기도’의 첫 세 가지 청원은 아버지의 영광이 그 목적이다. 곧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하느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이다. 나머지 네 청원들은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청원들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을 얻고 죄를 치유받기 위한 것이며,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과 관계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57항).

【어록】

▶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성 치프리아노).

▶ 성경에 실려 있는 모든 청원을 살펴봅시다. 나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연유하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성 아우구스티노).